

라미야란 그랜드 무프티께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공존하는 터키에서의 이웃종교체험 성지순례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순례를 통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라미야란 종교청장님의 배려로 시작되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공무에 바쁜 와중에도 직접 우리 순례단을 환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이슬람의 종교적 깊이와 이웃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표명해 주신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에 대해 함께 하신 이웃종교 공동대표님들께서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이스탄불과 카파도키아, 에페소 등의 일정 역시 뜻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종교 순례단 모두가 종교청장님의 깊은 배려를 잊지 않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을 잊지 않고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대화를 잊지 않고 함께 정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종교청장님과의 대화를 참고해 한국사회에서 이슬람에 대한 오해를 가진 이가 있다면 마음을 열고 소통하여 화합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터키 내 한국인들과 한국의 종교 문화에 대한 소개와 소통의 장 형성에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종교청장님과 터키 국민들 터키 무슬림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4년 12월 터키에서의 만남을 소중히 새기며...

사단법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